



한민족의 시조 [단군]

## 개 천 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의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세운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서기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이다.

하지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개천(開天)'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는 124년 전 천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열어 홍익 인간의 대업을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에 해당된다.

## 한 글 날

### \* 의미 \*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며 세종의 성덕과 그 위업을 추모하며 나아가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 \* 유래 \*

1926년 11월 4일 한글학회(당시 조선어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가갸날>이라 하여 행사를 처음 거행하였다. 1928년 명칭을 한글날로 바꾸었으며, 기념일도 몇 차례 수정되다가 1940년 《훈민정음》 원본 발견으로 그 서문의 <9월 상한>에 따라 1946년부터 양력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여 기념하였다. 1970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공휴일이 되었으나, 1990년 기념일로 바뀌었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하여 각종 기념식 및 학술행사 등을 거행하고 있다.





국적 :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성명 : Pak Aleksander(박 싸샤)

나이 : 33세(1982년생)



정식 명칭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으로,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한 공화국의 하나이다.

면적은 44만 7,400km<sup>2</sup>, 인구는 3,048만명(2013년 현재), 수도는 타슈켄트(Tashkent)으로 인구는 약 250만명이다.

언어는 우즈베크어가 공용어이며,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교가 88%, 동방정교 9%, 기타 3%이다.



[사진1] Uzbekistan 국토

종족구성은 우즈베크인 80%), 러시아인 5.5%, 타타르인 1.5%, 카자흐인 5%, 타지크인 5%, 카라칼파크인 2.5%, 한국인 1% 등이다. 종교는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이다.

기후는 대륙성기후로 건조한 편이나 평지는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드물며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주요 산업으로는 면화생산이 발달하였고, 천연가스도 대량 생산된다. 공업은 풍부한 가스·석유 및 전력자원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최대의 제철소를 가지고 있다.

경공업 분야에서는 섬유 및 식품공업이 주로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기름진 토양을 자랑하였던 전국토가 인공개간 및 다량의 비료사용으로 인하여 토지파괴가 극심한 형편이다.

2014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567.8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1,880달러(EIU), 경제성장률 8.0%(EIU), 물가상승률은 7.2%, 실업률은 약 4.9%(64만명), 교역은 총 242억 달러(수출 128억 달러/수입 144억 달러)(EIU), 환율은 1USD=2,284UZS, 군사력은 총 5만5천명(지상군 4만명/공군 1만5천명) 이다.

이 나라의 정체는 임기 7년의 대통령 중심제 공화제이며, 의회는 양원제로 임기 5년의 상원(100석)과 하원(120석)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당은 자유민주당(39석), 인민민주당(27석), 헌신애국민민주당(18석), 재건민주당(11석), 정의사회민주당(10석), 자유당, 통합당 등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우즈베키스탄은 기원전 6세기에는 페르시아제국 영토였으나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대왕에게 정복되어 그레코·박트리아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7세기에 터키, 8세기에 아랍, 9~10세기에 사만왕조, 13세기에 호레즘, 13세기 후반에 몽골, 14세기에 티무르의 지배를 받았다.

동쪽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한다. 북서 일부는 아랄해(海)에 면한다. 125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국가이며, 국명은 '우즈베크인(人)의 나라'라는 뜻의 페르시아어(語)에서 유래했다. 행정구역은 1개 자치공화국(respublika), 12개주(viloya), 1개시(shahar)로 되어 있다.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제국이 이 지역을 침공하여 1867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러시아령 투르케스탄현을 설치하였으며, 1920년에 부하라와 히바에 소비에트정권이 수립되었다.

1924년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 탄생하였으며, 1925년 구소연방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구소연방의 해체과정에서 1990년 6월 주권선언을 하고 1991년 9월 1일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12월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하였다. 1992년 12월 8일에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사진3] Uzbekistan의 주변국과 주요 도시



[사진2] Uzbekistan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의 현 대통령 이슬람 압두가니예비치 카리모프(Islam Abduganievich Karimov)는 1990년 3월 최고회의의 간선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91년 12월 직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2015년 현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도좌경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1992년에 유엔과 비동맹회의에 가입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개황, 2010. 2., 외교부

우리나라는 1992년 1월 29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93년 12월 한국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우리 정부는 독립국가연합 내 제1의 한인동포 밀집주거지역인 이 나라에 현지동포의 한글교육과 한민족의 전통문화의 소개 및 계승을 위하여 1992년 5월 말 타슈켄트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하였다. 그리고 1992년 6월 16일 이슬람 카리모프(Islam A.Karimov) 대통령이 공식방한하였고, 1994년 6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타슈켄트를 방문한 바 있다.



양국은 1992년 6월에 무역 협정, 투자보장 협정, 과학·기술협력 협정, 사증발급양해각서, 1994년 6월에 외무부간협력의정서, 자유통행 양해각서, 문화 협정, 항공 협정, 1995년 2월에 과학기술협력 계획, 관광협력양해각서, 교육협력양해각서, 농업기술양해각서, 1998년 2월에 이중과세방지 협약, 1999년 7월에 EDCF차관 협정, 1999년 10월에 세관공조 협정, 2000년 3월에 EDCF차관 약정, 2000년 7월에 의료단파견교환각서, 2003년 2월에 범죄인 인도조약, 2004년 7월에 EDCF차관 약정, 2005년 5월에 국립지리정보체계구축 약정과 사회보장 협정, 2006년 3월에 EDCF차관 약정, 2007년 12월에 직업훈련역량개발 약정과 응급후송시스템개선 약정 등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액은 2013년 현재 17억 8,000만 달러로 주종목은 기계류·화학제품·담배 등이고, 수입액은 5,100만 달러로 주종목은 석유·우라늄 등이며 195건 16억 2,070만 달러이다.

2014년 현재 KT, 대우, 삼성,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의 업체가 진출해 있고, 2,500만 명의 교민이 있다.

한편, 북한은 1992년 2월 7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2006년 현재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있다. 2006년 6월에 농업기술협력양해각서, 2007년 2월에 항공기정비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북한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액은 2006년 현재 40만 달러로 주종목은 식물·전기제품·광물 등이고, 수입액은 106만 달러로 주종목은 면사·기계·농산물 등이며, 신광상사와 능라상사 등의 업체가 진출해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우즈베키스탄 국장은 사랑과 행복, 자유 그리고 이슬람을 상징



[사진4] 우즈베키스탄 국장

우즈베키스탄의 국장은 1992년 7월 2일에 제정되었다.

국장 가운데에는 떠오르는 태양 바탕에 후마라는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의 디자인이 그려져 있으며, 국장 위에 그려져 있는 파란색 팔각별 안에는 하얀색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다.

후마는 사랑과 행복, 자유의 상징으로 여기는 새이며, 팔각별은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인 이슬람교의 상징이다.

국장 왼쪽에는 목화가 장식되어 있으며, 국장 오른쪽에는 밀 이삭이 장식되어 있다.

국장 아래쪽에는 파란색, 하얀색, 초록색 세 가지 색의 가로 줄무늬로 구성된 리본이 목화와 밀 이삭을 묶고 있으며, 리본 가운데에는 "우즈베키스탄" ("O'zbekiston") 이라는 국명이 우즈베크어로 쓰여져 있다.

국기의 파란색은 하늘과 물,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며 녹색은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젊음과 희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붉은색은 붉은 피의 상징으로 생명력을 표현하고 초승달은 이슬람의 전통을 12개의 별은 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고 있는 12개의 주를 의미한다.

## 우즈베키스탄의 자연, 평화와 생명의 진화국

넓은 초원지대가 많아 농사보다는 계절마다 옮겨 다니며 양이나 말, 낙타 등을 기르는 유목생활이 발달하였고 아무 강과 시르 강 지류 지역은 물이 많아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봄과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거의 내리지 않으며 여름 강수량은 1년 강수량의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름철에 강물이 불어나는 이유는 고원지대의 빙하가 녹아서 강으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또한, 연간 일조량이 3,000시간을 넘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가 높아 맛이 좋기로 소문 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대체로 남서쪽의 아무다리야 강(고대 이름은 옥수스 강)과 북동쪽의 시르다리야 강(고대 이름은 자카르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다.

국경 내에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을 포함하고 있다. 남쪽과 동쪽에 기름진 오아시스와 높은 산맥이 있지만 국토의 거의 4/5는 햇볕에 말라붙은 평평한 저지대이다. 저지대는 중부와 서부에 있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키질쿰(사막)으로 바뀌고 서쪽으로 향하면 우스투르트 고원과 이어진다. 북서쪽에는 아무다리야 강이 복합삼각주를 형성하면서 아랄 해로 유입된다. 아랄 해 남부의 2/3는 우즈베키스탄과 면해 있다.

남동부에 있는 제라프산 강 계곡은 우즈베키스탄 고대 문화의 중심지로서 부하라, 사마르칸트 등의 역사적인 도시들이 있다. 전체 면적의 1/4에 달하는 동부 지역은 산맥과 산맥을 따라 흐르는 강의 계곡이 전형적인 지형을 이루고 있다. 협곡 중에는 토양이 기름지고 인구가 밀집된 곳이 몇 군데 있다.

기후는 아주 건조하고 대륙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여름이 길고 따뜻하며, 겨울은 짧고 대체로 온화한 편이다. 여름 평균기온은 32°C이다.

강들은 남동부의 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산맥에서 발원하여 중부와 동부의 메마른 저지대를 북서방향으로 지나면서 관개에 이용되거나 증발되어 유량이 줄어들고, 여러 개의 지류들은 사막에서 말라버리거나 본류에 이르기 전에 관개용으로 사용된다. 아무다리야 강과 시르다리야 강의 물을 관개용으로 끌어다 쓰는 바람에 한때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랄 해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아랄 해의 염도가 높아지고, 강에서 유입되는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수질이 오염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농경지가 흑사당하면서 염화 작용을 일으키고 화학적인 독성에 오염되고 있는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마르칸트

기원전 5세기경 사마르칸트의 이름은 '아프라시아브'였다. 항상 풍부한 물이 흐르는 제라프산 강은 아프라시아브를 소그디아나 왕국의 수도로 만들어 주었다. 발전을 거듭하던 사마르칸트는 기원전 329년 동방으로 영토를 넓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되었다. 이때부터 사마르칸트는 중국과 서양을 잇는 교역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진5] 파미르 고원

교역으로 풍부한 경제력을 갖춘 평화로운 사마르칸트에 불행이 시작된 것은 7세기 중엽이었다. 주변에 살던 많은 아랍 민족들이 끊임없이 사마르칸트를 공격했기 때문에 712년 마침내 아랍 민족인 우마이야 왕조가 사마르칸트를 점령하였고 뒤이어 여러 아랍 민족의 지배를 받았다. 아랍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상업 도시로 계속 발전해 나가던 사마르칸트는 1220년 칭기즈칸에 의해 재앙을 맞게 되었다. 아시아 동북 지방을 점령한 칭기즈칸이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중앙아시아를 점령해 버렸고 칭기즈칸의 군대는 1500년 동안 계속되었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칭기즈칸에 의해 사라진 도시는 그의 후손인 티무르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14세기 후반 사마르칸트를 점령한 티무르는 수도를 이곳으로 정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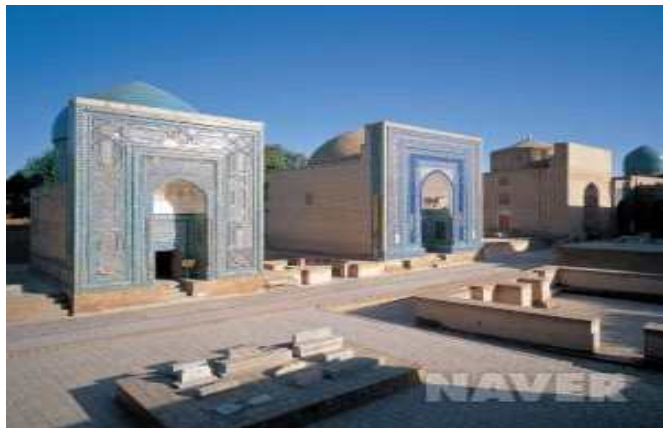
티무르는 자신이 건설한 사마르칸트를 '동방의 진주'로 만들기 위해 건축물을 세우고 학자들과 상인들을 도시로 불러들여 수도를 부하라로 옮겨 가기 전까지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와 문화 도시가 되었다. 1868년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을 정복하면서 다시 식민지가 되었고, 1991년 독립 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Registan Maydoni) 광장은 티무르가 이 도시를 건설한 이래 상업활동의 중심지였으나, 15세기 전반 우르그 베그가 이곳에 마스지드(이슬람교 사원)와

중앙아시아 도시들의 중심 광장. '레기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모래땅'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중앙아시아 도시들에서 시 중심부에 있는 광장을 지칭했는데, 지금은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에만 그 이름이 남아 있다.



[사진6] 사마르칸트시에 있는 레기스탄 광장



[사진7] 사마르칸트의 무덤 유적지  
샤이 진다



[사진8] 티무르 왕

아무다리야 강과 시르다리야 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사마르칸트는 예로부터 동방의 낙원, 중앙아시아의 로마,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고장이다. 사마르칸트는 동서양을 잇는 위치에 있어서 오랜 세월 여러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기도 했지만 교역과 학문의 중심지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마르칸트의 주요 유적지는 황금기로 불리던 티무르 제국 때 건설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르칸트를 동서양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이자 눈이 부시도록 푸른 건축물이 나열된 건축 박물관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일찍이 중국에서 종이 제조 기술을 받아들인 사마르칸트는 어느 도시보다 풍부한 유산을 갖고 있는데 당대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천문학 시설과 교육 기관, 여러 분야의 서적들은 사마르칸트가 종합 문화 도시라는 것을 말해 준다. 베일 속에 가려진 중앙아시아의 로마, 사마르칸트는 너무도 흥미로운 보물창고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마르칸트 (교과서에 나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011. 5. 10)

마드라사(이슬람교 신학교), 공중목욕탕, 숙박시설 등을 건설함으로써 바자르(bazar, 재래시장)적 성격을 벗어나 이슬람교의 신성한 장소로 변모하였다.

광장은 동서북 3방면이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된 사원이나 마드라사들로 에워싸여 있다. 부하라의 레기스탄 광장은 아르크 성채의 바로 서편에 있는데, 13세기까지는 행정기관과 고관들의 저택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상업공간으로 이용되었다. 19세기에는 이곳에 마스지드나 마드라사, 병원 등 많은 건물이 있었다고 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기스탄 광장 [Registan Maydoni] (실�크로드 사전, 2013. 10. 31., 창비)



[사진9] 구르 아미르 모슬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티무르(Timur)와 그의 손자 등 3대 제왕의 묘가 안치되어 있다. 이 건물은 1404년 티무르가 전쟁에서 죽은 손자 무함메드 술탄 (Muhammad Sultan)을 위해 만들었다

###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곳



[사진10]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고려인



[사진11]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꾸일룩시장  
(한인집단거주지)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이라 불리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다. 먼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동포들이 살게 된 것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면서 시작되었다.

우리 동포들이 구소련 연해주 지역에서 열심히 땅을 개척하며 살던 1937년, 당시 구소련을 다스리던 스탈린은 우리 동포들을 중앙아시아(당시 구소련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로 강제로 이주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우리 동포들이 일본의 첩자로 활동한다는 터무니 없는 죄목이 이유였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늦가을, 우리 동포들은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다. 당시 연해주에서 살았던 동포들은 대부분 일본의 탄압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온 동포들도 있었고,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열악한 화물 열차에 실려 일주일 넘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세상을 떠났으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낯선 우즈베키스탄의 각지로 흩어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살아야 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1937년 당시 어린아이였거나 청소년이었던 나이 많은 1세대 몇 사람과 2세와 3세가 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우리 동포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만 구소련의 철저한 현지화 교육으로 인해 우리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동포는 많지 않다.

##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현황

### 1. 고려인 동포사회 형성 과정

#### 1)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분산정책에 따라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17만 여명)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면서 시작되었다. 1937년 9월 ~ 12월 화물열차로 연해주 등 극동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주 과정에서 노약자 다수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고려인은 중앙아시아 이주 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주민들의 도움으로 월동하고, 강제이주 시 가져온 법씨 등 농작물 씨앗으로 수자원을 이용한 벼농사 등에 성공하여 중앙아시아에 쌀 등 식용작물을 보급하였다.



2차대전 시에는 거주·병역 제한, 적성민족이라는 누명 하에 탄광·군수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상실해 갔다.

그러던 중 1956년 니키타 세르게예비치 흐루쇼프(Nikita Sergeevich Khrushchyov)에 의해 한인을 포함하여 11개 민족이 공민권을 회복하였으며, 고려인은 '콜호즈(Kolkhoz: 소련의 농업생산협동조합, 집단농장)'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폴리타델(Politadel)' 콜호즈, '김병화' 콜호즈 등을 건설하여, 노동 영웅들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 2)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이후 고려인 위상 제고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1985년 4월에 선언된 소련의 사회주의 개혁 이데올로기) 이후, 1989년 9월 20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 총회 「고르바초프 보고서」에서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을 비롯하여 독일인·유대인 등 피압박 민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언급되었다. 1991년 4월 26일에는 러시아에 의해 '억압받은 민족들의 복권에 관한 법'이 채택되었으며, 1993년 4월 1일 '한인 복권령'이 채택되었다.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련 내 고려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고려인 지위 향상·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복원 움직임이 태동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은 전체 인구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약 17만 5천 명으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獨立國家聯合) (총 50만 명) 국가 중에서는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고려인은 구소련 시절에는 집단농장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다수 청년들이 상업 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고려인 동포들은 주로 타슈켄트(Tashkent) 주(7만 4,000명), 타슈켄트 시(7만 5,000명), 안디잔(Andijan) 주(1,320명) 등에 밀집 거주하고 있다.

## 2. 고려인 집단농장 [콜호즈(Kolkhoz)]

### 1) 김병화 농장

대표적인 고려인 집단농장으로 '김병화 농장'(1925년 창설, 1974년 김병화 농장으로 개칭, 동포 1,000여 명 거주)을 꼽을 수 있다. 이곳은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당시 고려인의 최초 정착지역 중 하나로 당시에는 갈대밭이었으며, 김병화는 1940년~1974년까지 35년간 농장 대표자를 역임하면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중 유일하게 2차례나 '노동영웅훈장'을 수훈하였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농장이 해체되어 현재는 사유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다수의 고려인이 떠나 현재는 약 1,000여 명의 고려인만 거주하고 있다.



## 2) 폴리타델(Politadel) 농장

‘폴리타델(Politadel) 농장(1929년 창설, 농장장은 카자흐스탄인)’은 ‘김병화 농장’과 비견되는 대표적인 고려인 집단농장으로 1953년 황만금이 농장 대표자로 취임하여 소련 내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면서, ‘노동영웅훈장’을 수훈하였다.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 중이며, 친북성향의 동포 다수가 거주하고 있다. 동 농장은 최고 11,0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5천~6천 명 정도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3. 고려인 동포 단체

### 1) 친한(親韓) 단체

#### ①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

고려문화협회는 1991년 11월 창설되었다. 1991년 우즈베키스탄 총리실 산하 소수민족 문화부흥 지원센터에 고려인 대표 단체로 공식 등록되었고, 우즈베키스탄 주요 지역에 46개의 산하 협회조직을 두고 있다.

#### ② 타슈켄트(Toshkent) ‘고려인사회연합회’

타슈켄트에 소재한 ‘고려인사회연합회’는 2002년 7월 창설되었다. ‘고려인협회’와 대립하는 단체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타슈켄트주 사회단체인 ‘고려인사회연합회’로 등록되었다. 산하 단체로 ‘아리랑 극장’이 활동 중이다.

#### ③ 기타 고려문화협회 산하 단체

기타 고려문화협회 산하 단체로는 ‘고려신문’(1997년 9월 창간), ‘고려 가무단’(1985년 5월 창설), ‘과학자 협회’(1992년 설립) 등이 활동 중이다.

### 2) 친북(親北) 단체

우즈베키스탄의 친북 단체로는 범민련과 고통련이 있다. 친북 단체인 범민련은 1992년 창설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및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獨立國家聯合)에 거주하는 고려인 5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고려인통일연합회(고통련)는 1992년 창설되었으며, 회원 수는 약 500여 명이다.

#### **4. 최근 고려인 동포사회 관련 동향**

##### **1)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행사**

2007년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15주년 및 '고려인 정주 70주년'을 맞아 한국은 공식 기념행사(9.22)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한국 정부는 고려인 정주 70주년을 맞아 고려인 1세대~2세대들의 생애와 우즈베키스탄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였으며, 고려인 동포 3세대~4세대들에게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해줄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 전반적으로 밝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2) 방문취업제**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문취업제에 따라, 2007년에는 시험에 의한 방문취업비자 쿼터가 4,022명이었으나 시험응시자가 2,020명으로 미달되어 미달 인원내에 대한 선착순 비자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여 전원 신청한 바 있으며, 동 쿼터에 대한 전체 신청자는 2008년 11월 현재 3,611명으로 89.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는 무시험 컴퓨터 추첨에 의해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2,711명의 쿼터 중 2,165명이 신청하여 모두 합격 처리되었으며, 동 쿼터에 대해 2008년 11월 11일부터 방문취업사증(H-2) 신청을 받고 있다.

##### **3) 고려인 1세대 독거노인을 위한 요양원 설립**

한국 정부는 고려인 이주 1세대 독거노인을 위한 양로원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바, 2007년 2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양로원 사업부지를 고려문화협회에 무상 임대키로 결정하였다. 2008년~2009년에는 재외동포재단 사업으로 요양원 보수공사비 예산 45만 달러를 확보한 후 2008년 8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되었다. 요양원의 운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맡기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 중이다.

##### **4) 한국교육원의 고려인 대상 한국어 교육 활성화**

우즈베키스탄의 한국교육원은 2009년 3월 현재 23명의 고려인 한국어 교사가 교육원내 49개 학급에서 1,270명의 수강생에게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다.

현지 한글교육 현황을 보면, 2009년 3월 현재 타슈켄트 시 72개교, 타슈켄트 주 35개, 기타 지방도시 32개 등 총 139개 초·중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14개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여 교육 중이다. 교사는 대부분 고려인 동포 2·3세대들이며 주당 4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5) 재외동포재단의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

재외동포재단은 고려인 동포사회 지원을 위해 매년 상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고려인동포 방한초청사업, 장학생 초청사업, 고려인 단체활동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현황 (우즈베키스탄 개황, 2010. 2., 외교부)

### 우즈베키스탄의 영웅, 고려인 김병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 외곽에는 '김병화 꿀호즈'라는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꿀호즈는 러시아어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며 생활하는 집단 농장을 말한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우리나라 회사의 이름을 딴 거리가 제법 있는데 개인의 이름을 따서 사용하는 농장은 김병화 농장 하나뿐이다.



[사진12]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김병화 동상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동포인 고려인들은 부지런하고 근검절약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노력 훈장을 받은 650명 가운데 고려인이 139명이나 된다.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한 고려인들이 20%가 넘는 노력 훈장을 받은 것만 보아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김병화 농장 한 곳에서 노력 훈장을 받은 사람이 24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또 노력 훈장을 2번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단 4명뿐이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김병화이다.

김병화 집단 농장은 195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구소련에 세워진 수많은 집단 농장 가운데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한다. 원래 이름은 북극성을 의미하는 폴리아르나야 즈베즈다 꿀호즈였는데, 1974년 김병화가 세상을 떠난 뒤 이름을 바꾸었다. 김병화를 기리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그의 탄생 100주년이 되던 2005년, 그가 땀 흘려 일하던 집단 농장에 동상과 박물관을 세웠다. 고려인 김병화는 동포들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영웅이다.

## 우즈베크스탄의 대표음식은 오쉬(Osh) 볶음밥



[사진13] 주식 논



[사진14] 양고기 꼬치

우즈베크인의 음식은 채소, 육류, 유제품으로 구성된다.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육류 요리에는 주로 양고기를 사용한다. 우즈베크인의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 평소에도 명절에도 빼놓지 않고 먹으며, 손님에게는 반드시 대접하는 음식이 우리의 볶음밥과 비슷한 플로프이다.

그 외에 쌀과 녹두를 섞어 만든 죽, 라그만이라 부르는 국수, 야채를 넣어 끓인 양고기 국인 슈르파, 콩과 고기를 볶은 누하트, 그리고 '논'이라 불리는 밀가루로 만든 빵이 주요 음식이다. 빵 가운데 사마르칸트에서 만든 것이 맛이 좋고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빵과 관련하여, 집안 식구 가운데 누군가 군대를 가거나 멀리 떠나는 경우 빵을 한 조각 떼어 먹고 나머지를 집에 두고 가는 풍속이 있다. 무사히 귀가하여 나머지 빵을 먹을 수 있기를 염원하는 일종의 주술적 행위다.

우즈베크인도 샤슬릭을 즐기는데, 우즈베크 전통 샤슬릭은 고치에 고기 덩어리를 꿰어 굽는 것이 아니라 붉은 살코기와 지방을 순서대로 고치 다섯 개에 꿰어 굽는 것으로, 다섯 손가락이라는 뜻의 베시판자(бешпанджа)라고 불린다.

우즈베크스탄의 전통 음식 중 대표음식은 오쉬(osh)라는 볶음밥이다. 쌀과 양고기, 소고기, 당근, 양파, 마늘, 콩 등과 함께 섞어 기름에 볶아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넓은 접시인 라간(lagan)에 담아 식탁에 올리고 손님들과 함께 먹는다. 오쉬를 먹을 때는 토마토, 양파를 소금과 고춧가루 등으로 양념한 셀러드인 아치추축(achchig chuchuk)을 곁들여 먹기도 한다.

또한, 밀가루를 반죽하여 탄디르(tandir)라는 진흙 화덕에 둥글고 납작하게 구워 낸



빵인 논(non)을 즐겨 먹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맛이 일품이다. 논 종류는 밀가루, 물, 효모만 섞어 구운 것, 우유와 버터로 반죽한 것, 향이 나는 풀로 만든 것 등 다양하다. 논을 먹을 때는 절대로 칼로 잘라서는 안 되며 손으로 뜯어 먹어야 하고 자른 빵은 모양이 있는 앞면이 위로 보이도록 해야 한다.



[사진15] 잔칫상 위 접시에 담긴 밀 싹

<출처: <http://mytashkent.uz/2011/03/22/navruz-park-babura/>>

나부르즈 잔칫상에 접시에 담아 올려놓는 밀 싹은 중앙아시아 튀르크계 민족과 이란 등 페르시아계 민족 공통의 새해와 새 희망의 상징이다

### (1) 뽕롭(плов)

우리 나라의 볶음밥과 비슷하지만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엔 다소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인들은 주로 '기름밥'이라고도 부른다.

달군 양기름에 양파와 고기(양고기, 쇠고기)를 넣고 익힌 후 노란당근을 넣어 볶는다. 그리고 물을 적당하게 넣고 끓인 후 씻은 쌀을 넣는다. 쌀이 반쯤 익었을 때 마늘과 건포도, 콩 등 원하는 재료를 넣어 쌀이 익을 때까지 뜸을 들인다.

손님들이 오거나 잔치, 생일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드는 우즈베크 전통음식으로, 우즈베크 사람뿐 아니라 고려인 등 중앙아시아 민족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지역에 따라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차이가 있으며, 그 이름도 100여가지가 된다.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는 음식이다.

뽕롭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 중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알렉산더가 전쟁 중 병사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

것을 취사병에게 명령을 하자 그 취사병이 고심 끝에 만든 것이 뽕롭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터에서처럼 '야외에서', '큰술에' 그리고 꼭 '남자가' 만들어야 최고의 뽕롭으로 여겨진다.

타슈켄트에서는 '바담자르' 구역에 가면 큰 뽕롭 전문 식당이 있는데, 약 10여 종류의 다양한 뽕롭을 맛 볼 수 있다. 점심시간에만 영업을 한다.

## (2) 리뽀쉬까

항상 우즈벡 식탁에는 빠질 수 없는 주식으로, '탄드라'라는 벌집 모양의 큰 진흙가마에서 구워지는 빵이다. 보통 원형모양으로 두꺼운 피자빵과 비슷하며, 둘레는 두껍고 가운데는 얇고 편편하며, 표면에 깨나 향신료를 뿌린다. 가운데 얇은 부분은 과자처럼 바삭 바삭하며 맛이 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맛을 느낄 수는 없지만 구수함이 입안에 가득하다. 그리고 빵이 질기지만 쫄깃쫄깃하다. 한국 관광객 100%가 좋게 평가하는 음식 중 하나다.

우즈베크인들에게 빵은 신성한 것으로 만들 때도 보관할 때도 항상 정성을 다한다. 우즈베크어로는 '논'이라고 한다.

## (3) 샤실릭(шашлык)

미리 향신료로 양념한 양, 소, 닭, 돼지고기를 꼬치에 끼워 숯불에 구워먹는 음식으로 한국사람들이 좋아한다. 이슬람권이라 돼지고기는 금하고 있지만, 비무슬림을 위해 돼지고기 샤실릭을 판매하는 식당도 꽤 많다. 작은 고기 덩어리, 같은 고기, 간, 감자 등 다양한 재료의 샤실릭이 있다. 숯불에 구워지면 채썬 양파에 식초를 뿌려 함께 먹는다.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저녁식사 때가 되면 거리 곳곳에 샤실릭 굽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하다. 민물생선으로도 샤실릭을 한다.

## (4) 삼사(самса)

밀가루 반죽을 만두피 빛는 것처럼 얇게 민 후 녹인 버터를 골고루 묻혀 달걀말이 하듯 돌돌 만다. 그리고 길어진 반죽을 한 입 크기로 작게 잘라 다시 한번 밀어 속(양파와 고기 다진것)을 넣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 주로 세모 또는 둥근 모양이다. 만든 것들을 오븐이나 가마에 구우면 된다. 한국의 고로케와 만두의 중간쯤 되는 음식이다. 집집마다 맛의 차이가 있으며, 괜찮은 집은 정말 맛있다.

#### (5) 펠메니(пельмени)

우리 나라의 만두랑 비슷한데, 단지 크기가 작을 뿐이다. 들어가는 속 재료는 고기와 양파 다진 것으로 만들기도 쉽다. 만두국처럼 먹기도 하고, 물만두처럼 찌서 먹기도 한다.

#### (6) 슈르빠(шурпа)

고기를 끓인 후 감자, 양배추, 양파, 당근 등을 넣어 끓인 국이다. 양념을 넣지 않고 향신료로 간을 해서 기름이 많고 좀 느끼한 맛이 난다.

#### (7) 라그만(лагман)

우즈벡식 짬뽕이라 불린다. 슈르빠처럼 국물을 만든 후 야채와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고 국수면발을 넣어 만든다. 위구르식 라그만은 국물이 없고 고기와 채소를 볶아서 만드는데 한국의 '야끼우동'의 맛이 난다.

철수바자르 뒷편의 구시가지에 가면 라그만 전문집이 꽤 많으며, 맛 또한 일품이다.

#### (8) 수말락(сумаляк)

이 음식은 나브루즈(Навруз) 기간에 주로 만드는 음식으로 빵과 함께 먹는다. 축제 때에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기도 한다.

3일 동안 밀을 뜨거운 방에서 매일 물을 주며 발아시킨다. 이때 여자들은 매일 몸을 정결히 하고 코란을 읽고 좋은 생각을 해야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이 타서 맛있는 수말락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3일 뒤 이것을 갈아서 밀가루랑 섞어 기름을 조금 두른 후 냄비(보통 큰 가마솥)에 조금씩 물을 부어가며 약 하루를 계속 놓지 않게 젓는다. 원래 수말락이라는 뜻이 7명의 천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리할 때 7개의 작은 돌이나 호두를 넣고, 먹을 때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행운을 얻는다고 한다.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기 때문에 우즈벡 사람들은 밤에 천사가 몰래 와서 설탕을 넣고 갔다고 믿는다.

#### (9) 차이(чай)

목이 마를 때도, 손님이 와도,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도, 한여름에도 뜨거운 차이 한 잔. 다과를 할 때는 물론이고 식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차이를 제공한다. 찻잔에 차를 따를 때에는 찻잔의 2/3정도 따르는데, 이것은 차를 마시는 손님이 더 머무를 것을

청하는 환대의 표시이다. 차는 홍차와 녹차가 있는데 주로 우즈베크인들은 녹차를 선호한다.

기호에 따라 설탕과 레몬을 함께 타서 마신다.

이외에도 까잔까보프, 베쉬빠자, 보르쉬 등의 전통음식이 있다.

### 우즈베키스탄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은 9월 1일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8월 31일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991년 9월 1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한 후 매년마다 9월1일은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매년마다 독립기념일은 '하이트' (이슬람교의 단식 월 기간이 끝나는 날) 과 겹쳐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1달간의 금식 기간이 끝난 후 경건한 마음과 함께 맞는 독립기념일 행사는 기념일 준비에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해 1달 전부터 거리와 건물들을 청소하고 가꾸는 준비들로 시작된다.

9월 1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는 지역과 도시 별로 자신들의 지역 특색을 살린 독립기념일 행사를 시작으로 수도 타슈켄트'알리셰르 나보이' 국립공원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 시간 가량 펼쳐지는 대규모 행사를 마지막으로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를 마친다. 독립기념일 행사 전, 후에는 다양한 예술 축제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게라작 오보지(젊



[사진16] 우즈베키스탄 국경일의 아름다운 축제

은 예술인들의 축제)", "샤르크 타로날나리 (동양의 선율)"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축제에는 각 민족 대표예술인들의 축하공연, 우즈베크 유명 가수, 전통 춤사위 그룹, 성악가 등 예술인들이 모두 함께 공연을 펼쳤으며 공연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기념일 행사는 약 50여 개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상영이 되기도 해 세계를 향해 열린 우즈베키스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매년마다 펼쳐지는 우즈베키스탄 독립 기념일 행사는 시종일관 즐겁게 즐기는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진다. 대통령부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공연무대에서 펼쳐지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흥겹게 춤을 추고 춤을 청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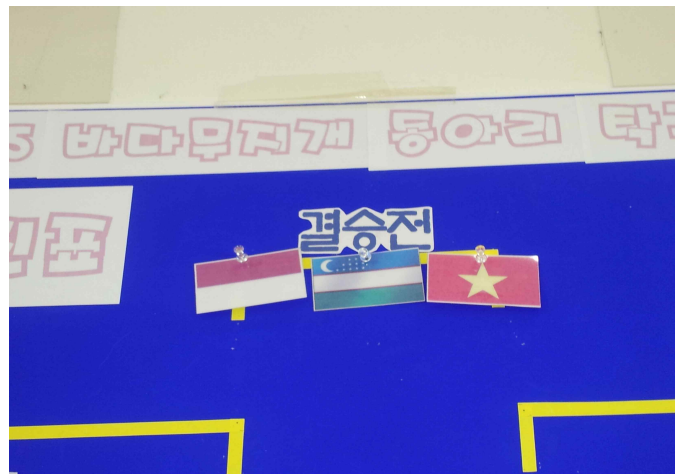


독립 기념일 행사 중 마지막의 대미를 장식하는 엄청난 폭죽들은 시내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장관으로 '알리셰르 나보이' 국립공원에 가지 못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쏟아지는 불꽃을 보며 환호한다. 그 환호 속에는 화려한 불꽃만큼 희망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담겨 하늘로 올라간다.

### 창원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자국기념행사가 열려.....



[사진17] 탁구동아리 경기



[사진18] 탁구 결승에 오른 우즈베키스탄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CFC)는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국기념일 행사" 일환으로 바다무지개 동아리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개인(단식)전과 단체(복식)전으로 나누어져 예선전은 조별 리그전을 실시하고 결승전에서는 3개국 리그전을 실시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결정하였다.



[사진19] 탁구경기 전 기념촬영



[사진20] 탁구 선수의 멋진 모습

단식에서는 최우수상 인도네시아, 우수상 중국, 장려상 베트남이, 복식에서는 최우수상 베트남, 우수상 인도네시아, 장려상은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일 행사로 치러진 만큼 우즈베키스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승부의 세계는 냉정 했다.



[사진21] 탁구 동아리 국가별 리더



[사진22] 박 알렉산더는 아쉽게 참가상

Pak Aleksander는 못하는 실력이지만 우즈베키스탄 자국기념일 행사이니 만큼 참여하고 싶다며 탁구 단식에 참여 했지만 아쉽게 저서 참가상 만을 받으며 흐뭇해 했다.

### Pak Aleksander의 고향은 굴리스탄(Gulistom)

Pak Aleksander 고향인 굴리스탄(우즈베크어: Guliston, Гулистон, 러시아어: Гулистан)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 주의 주도로 타슈켄트에서 서남쪽으로 120km 정도로 버스타고 약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한 스텝 지역이지만 1950년대부터 시작된 관개 시설 사업에 따라 목화 재배 중심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곡물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인구는 53,745명(2007년 기준)이지만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심 지역에는 굴리스탄 주립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좁은 시가지 주변에는 넓은 농업 지대가 펼쳐져 있다.



[사진23] 굴리스탄의 위치



[사진24] 굴리스탄의 바자르(시장)

아버님은 주물공장, 어머니는 봉제공장에 다니실 정도로 산업화가 융성한 지역이다. 형제가 1남 3녀 인데 누나 둘과 러시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여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여동생은 모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본인은 아직 할 일이 많아 미혼이다. 할 일이 뭐냐 하니 장남으로 그동안 집안 살림을 돌보느라 많이 바빴으니 이제 본인의 삶을 위해 열심히 근검절약하여 예쁜 색시를 얻어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행보가게 사는 것이 남은 일이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공장에서 근무하면 평균 20만원(한화) 정도를 받고 있으며 Pak Aleksander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큰 꿈을 가지고 2013년 05월에 오게 됐다. 처음 입사한 경남 남지의 캡스턴회사에서 지금까지 2년 넘도록 근무를 성실히 하고 있다. 회사는 플라스틱물통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아주 만족할 정도로 좋다고 한다. 회사는 아전 08:30에 시작해서 오후 08:30(20:30)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며 매일 잔업 2시간을 하며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근무 환경이 매우 우수하여 매우 만족해 한다.

회사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아 전체 25명 중 20여명이 외국인근로자들인데 회사에는 총 2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 외국인근로자가 우즈베키스탄 7명, 방글라데시 8명, 중구 4명, 베트남 1명이 근무 중인 비교적 외국인근로자가 20여명정도로 비교적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이다. 월 급여는 평균 220만원 정도 받아 150만원 정도는 집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나머지 돈으로 회사에서 얻어 준 기숙사에서 나이 많은 형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회사에 대해서 너무 좋은 예기만 하지 말고 힘든 일을 이야기해 보라하니 '굳이 말한다면 플라스틱 냄새, 그리고 열기로 뜨거움이 있다'는 것으로 말을 줄인다. 그 외sms ahen 만족하다는 뜻이다. 회사에서는 주로 반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회식을 할때에도 반장님과 격식없이 아주 재미있게 회식을 한다. 한국 음식은 소고기, 닭고기(치킨)를 매우 좋아하며 가끔 기숙사에서 한국음식도 직접 해 먹는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회사가 좋은 만큼 열심히 일해서 성실근로자가 되어 한국에 재입국하고 싶다' 하며 본국으로 가면 아마 미화 약 400\$ 받을 텐데 가능하면 한국에서 더 근무한 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해 볼 생각이라 한다.

Pak Aleksander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우즈베키스탄커뮤니티 이원의 한 사람으로 성실히 참여하며 한국어 및 컴퓨터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즈베키스탄 음식커뮤니티를 하고 커뮤니티 회원들과 더불어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사진25] 우즈베키스탄 음식커뮤니티



[사진26] 우즈베키스탄 전통춤도 보여 주고

아무쪼록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본인의 큰 꿈을 만들며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 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고향 찾아 '봉사한류'

2015.09.03 04:04:02



사진설명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 둘째)이 설맞이 사회복지시설위문을 하고 재단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은 울산으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전한 공단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징검다리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복지시설의 어르신들께 음식전달과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따뜻한 음식과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분기별 1회씩 하고 있다.

지난 2월 설 명절에는 소외된 이웃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봉사활동도 펼쳤다. 박영범 이사장, 손종배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우리사랑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 보리수마을,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시시립노인요양원 등 4곳을 방문하여 소정의 기부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울산지역의 숙련기술인 봉사회와 합동으로 외국인고용지원사업과 연계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능봉사와 환경개선을 해 주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울산숙련기술봉사회와 협업으로 인도네시아 찌부뚜마을과 아mana그룹홈에서 희망의 우물파기, 이·미용 봉사, 사랑의 빵 나눠주기, 공부방 만들기 및 학용품 전달 등 기능봉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 상호 간 우의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채용인원의 7% 이상을 무조건 울산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 채용목표제'를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울산으로 본부를 이전한 공단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해 울산출신 응시자에게 가점을 주고도 적격자가 없어 4%인 5명밖에 선발하지 못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공단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보통신기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정보소외 계층을 위해 '재생PC 나눔운동'을 진행했다. 박영범 이사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과의 아름다운 소통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Vietnam EPS]

### 내년 최저 임금 합의 : 12.4% 상승

- 2015년 9월 3일 하노이에서 열린 세 번째 최저임금안 회의에서 협상자들은 수 시간의 열띤 논쟁 끝에 합의에 도달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 12.4%를 승인 요청할 것이라 결정하였음.
- 최저임금 급지별 임금 수준 결정은 위원회 멤버들의 90%이상이 12.4% 인상에 표를 던진 후 오후 12:30에 종료됨.
- 이전 두 번의 회의에서 노동총동맹은 16.8% 임금 상승을 원하는 반면 고용주 대표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이보다 낮은 9-10%의 상승을 주장했다.
- 세 번째 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의장이자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인 Pham Minh Huan는, 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힘.
- 내년 임금인상율은 올해 수준이며 최저 생활 수준의 80% 이상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에 제출될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 1급지 월 350만동(40만동 상승), 2급지 310만동(35만동 상승), 3급지 270만동(30만동 상승), 그리고 4급지 240만동(25만동 상승)임.
- 재계는 낮은 임금 상승을 원했으나, 위원회안에 따른 정부의 승인안에 따를 것이라고 상공회의소 부회장 Hoang Quang Phong은 밝힘.
- Phong에 의하면, 기업들은 임금 인상과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인상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 함. 상공회의소는 사회보험 지급을 낮추는 안 및 노동자 수입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을 지급하도록 하는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음.
- 16개 산업 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10%, 심지어 일부 기업의 경우 6-7%의 임금상승만 감당할 수 있다 함.
- 노동총동맹 부회장 Mai Duc Chinh는 노동자측은 12.4%향상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함. 다만 상승률이 올해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적절하며 노동자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 실제 많은 노동자들은 고용계약에 의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음. 그러나 Chinh은, 기업들이 2018년부터 고용인의 실임금에 기초하여 사회보험료를 계산, 지급하게 되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밝힘.
- 베트남 섬유 의류협회 회장 Vu Duc Giang에 의하면 위원회가 결정한 상승률은 현지 섬유 및 의류 회사에 엄청난 압박을 줄 것이며, 업계가 사회보험으로 6조동 및 노동조합 비용에 4,500억동의 추가 지출이 있을 것이라 밝힘.

[출처 : The Saigon Times No. 5010, Sep 4, 2015]





[ 캄보디아EPS 소식 ]

**캄보디아, 귀환근로자 맞춤형훈련교육수료식 거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김원진 대사 수료식 참석**  
**귀환근로자들 격려**

2015년 09월 24일 (목) 14:04:10 박정연 기자 planet4u@naver.com

아세안투데이 박정연 기자 = 캄보디아 귀환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행사를 겸한 맞춤형 훈련 교육생 수료식이 김원진 주캄보디아 대사, 정차영 경제담당 서기관, 박동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장, 노용준 한국교육센터장, 현지진출 기업대표 등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수도 프놈펜 한국교육센터(KEC, 원장 이순예)에서 열렸다.



▲ 김원진 주캄보디아 대사(가운데)가 이날 행사에 참석, 맞춤형훈련교육과정을 수료한 귀환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사진/프놈펜 박정연 기자]

김원진 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귀환 근로자 여러분들의 한국에서의 근무 경험이 단순히 여러분과 가족들의 경제적 여건에 보탬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국내에서도 적극 전달,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사는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기업들에 취업한 후 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훈련과정이 캄보디아에 재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캄보디아 양국간 협력관계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교육수료생들을 격려했다.

박동준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지사장은 "동 훈련 과정은 비단 캄보디아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어 및 한국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유능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지 한국업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한국정부를 대신해 공단측에서도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을 지닌 근로자들에게 더욱 많은 취업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이 운영하고 있는 EPS 센터에서는 한국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귀환한 현지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맞춤형 훈련교육을 실시해왔다.



▲ 김원진 주캄보디아 대사(가운데)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박동준지사장(왼쪽)과  
노용준 한국교육센터장의 손을 맞잡고, 상호협력강화를 약속했다.  
[사진/프놈펜 박정연 기자]

이번 훈련과정은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중점훈련 및 한국기업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귀환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익힌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캄보디아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KEC 등 2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귀환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으며, 본 커리큘럼에는 한국어, 엑셀을 포함한 컴퓨터 행정사무, 영어, 생산관리 등 직무관련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귀환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노동부 등 정부당국으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일례로 지난 2014년에는 맞춤형 훈련과정을 수료한 전체 247명중 무려 54%가 넘는 134명이 한인기업체에 취업하는 등 높은 취업률을 보여준 바 있다.

금년에는 2개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차 과정 중 5회 훈련교육을 걸쳐 총 330명 근로자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미 수료했으며, 이날 교육생 수료식에서도 총 54명이 수료증서를 받았다. 본 수료식 행사와는 별개로 매년 분기별로 진행해온 이날 구인구직 만남의 장에는 (주)에스텍(공장장 서기훈), (주)앙코르 헤비모터(대표 최삼환. 이하 대표생략), K2여행사(김우택), (주)세창 농수산(구본성), (주)CK AGRICULTURE(허명진), 캄보 로또&싌 엔터(송정환) 등 6개 현지진출 한인기업체들이 구인구직행사에 참가, 본 교육과정을 마친 귀환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면접을 가졌다. 아세안투데이

## 베트남 전자상거래 확장

- 베트남 전자상거래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 시대에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가?
-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관련 세미나에서 베트남은 전자상거래 시장에 몇 백만 불을 투자했으며 현재도 계속적으로 투자 중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 함.
- 현재 베트남 내, 약 15만개 기업이 개별 홈페이지를 사용 중이지만 그 중, 약 50~60%만이 온라인 쇼핑 및 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 들 또한 95%가 중소기업 또는 회사 인력 및 규모가 상당히 작은 기업임.
- 이렇듯, 베트남 전자상거래는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뚫기 시작한 단계이며, 아직까지 튼실한 전자상거래 기업이 없고, 소수의 회사만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allup에서 조사한 결과, 베트남 사람 43%가 가정에 인터넷 보유, 핸드폰 소지 94%, 스마트폰 37% 소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 경로는 핸드폰 31%, 컴퓨터 18%, 노트북 10% 수치를 나타냄.
- 몇몇 외국투자기업이 최근까지 베트남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 및 시장평가 조사한 내용으로 9200만 명중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3000만 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 그렇지만 향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상당히 낙관적임, 2020년 이후, B2C 전자상거래는 연간 25% 증가 및 100억불 도달 예상(온라인 구매 연간 1인당 400불, 80% 기업이 주문 거래 온라인 이용)또한 m-Commerce 부분 또한 많은 발전을 예상(logistics 인프라 및 신속 정확한 온라인 결제)
- 베트남은 2015년을 비롯한 향후 몇 년 동안은 온라인을 이용한 구매율 및 인터넷 영상 시청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구글의 예측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폰 사용량은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 전자상거래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물건 거래, 운송, 온라인 결제, 소비 습관, 전자상거래에 대한 베트남 사람의 믿음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큰 규모를 비롯하여 기업들을 위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이에, 베트남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로지 기업들 몫임.

[출처: 베트남 상공부 온라인신문 Sep 10, 2015]



# 네팔지진피해 성금전달



일 시 : 2015.09.19.(토)

장 소 : 네팔 Little Angel's School

성금모금기간 : 2015.04.28.(화) ~ 2015.06.14.(일)

대 상 : 경상남도 EPS 외국인근로자, 센터직원 및 지역주민

금 액 : \$ 3,300

전달자 : 산업인력공단 본부장 김평희,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팀장 남정순

수요자 : 네팔 외국인력 송출기관장 수베리

내 용 : 네팔 지진피해 성금 전달

2015년도 네팔 제6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전, 2015년 09월 19일 토요일, 네팔 지진피해 성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김평희 본부장님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팀 남정순 팀장님께서 네팔 외국인력 송출기관 수베리 기관장님께 성금 3,300달러를 전달 해 드렸습니다.

하루빨리 지진피해 복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 해 드렸습니다.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C F C 소식

## 제6차 EPS 리더간담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EPS체결 국가 리더분들과 함께  
간담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20일 "2015 창원시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는 유익한 간담회가 되었습니다.

일 시 : 2015. 09. 06(일) 11:00~12:00

장 소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실

내 용 : "2015창원시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세부내용 토의



# 동아리 활동

## 영화감상 동아리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영화 감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황비홍"으로 화려한  
액션과 무술 장면들을 보면서 기분도  
기운도 모두 충전하는 유익한 감상이  
되었습니다.



## 사물놀이 동아리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  
인근로자분들과 함께 한국의 흥겹  
고 신나는 음악과 멋을 즐기는 사  
물놀이 동아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사물놀이 장  
비를 직접 경험해보며 국 가락의  
멋과 흥, 경쾌함을 통해 한국을 더  
욱 알아가고, 즐기고 느끼고, 경험  
하며 스트레스도 해소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물놀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가 더  
욱 외국인근로자분들께 쉽고 재미  
있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는 가치있  
는 동아리 활동이 되었습니다.

# 운전면허교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운전면허 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전면허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한국의 교통법규와 교통문화를 배우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다가오는 운전면허 시험을 향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외국인근로자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 바다무지개 크리켓대회

일시: 2015.9.6(일) 13:00~18:00

장소 : 함안 칠서 초등학교

참가 국가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총 80여명



창원센터는 2015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 일환으로 바다무지개 크리켓  
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세 나라가 참가 하여 열띤 시합을  
펼쳤습니다.





# 마산의료원 무료진료

2015.09.13. 일요일,

마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팀에서 오셔서 무료 진료를 해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 한명이 식후 혈당이 378이 나와서 모두들  
놀랐는데요, 얼른 치료받으셔서 좋은 결과 바랍니다.

힘든 일로 허리가 아픈 근로자들 역시 많은데, 마산의료원 진료로  
힐링 받으셨길 바랍니다.



# 산업안전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건강과 안전, 사업장에서 활기찬 업무를 돕고자 안전보건공단 "김상우 과장"님을 초청하여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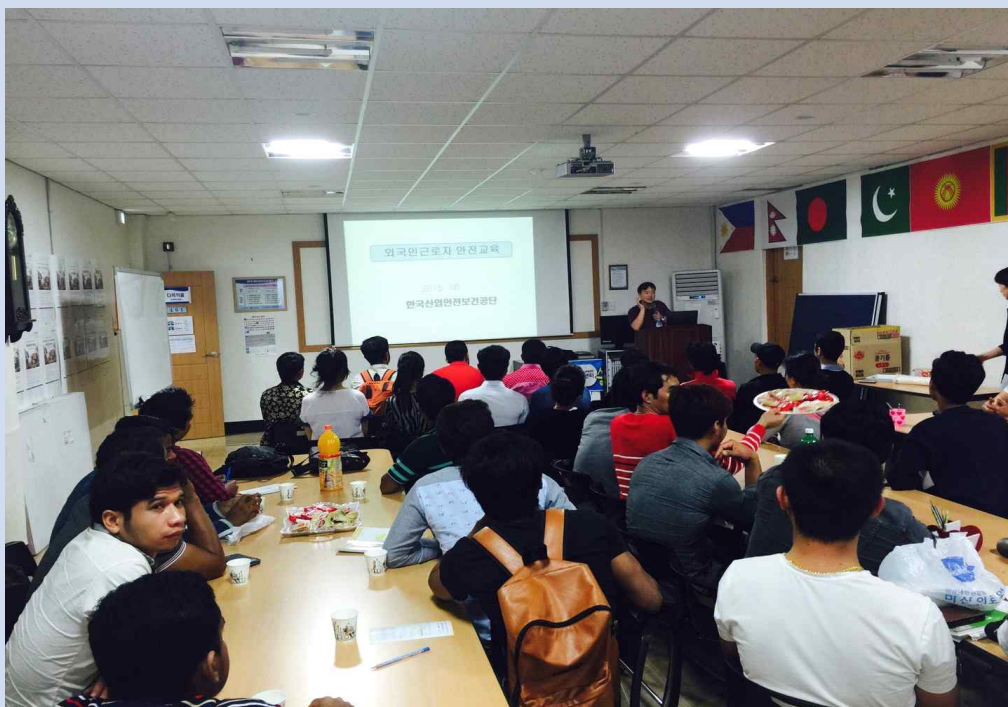
많은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 참가 하셔서 안전과 건강, 생산성 향상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 시 : 2015. 09. 13(일) 15:00~16:00

장 소 : 다목적 홀

대 상 : 외국인근로자

강 사 : 안전보건공단 김상우 과장





# WEDUDAY



2015.09.02. 제 28회 weduday

- 외국인력지원센터 전체 workshop 개최 관련 우수사례 발표

2015.09.09. 제 29회 weduday

- 외국인력지원센터 전체 workshop 개최 관련 우수사례 수정발표



# 2015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2015년 09월 20일 일요일, 마산실내 체육관에서 '2015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1부개회식은 행복만들기로 각 국가 기수입장, 개회사 및 축사, 축하공연이 이루어 졌고, 세계음식체험마당에서는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등이 참여한 여러 국가의 음식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행복한 어울림 한마당으로 먼저, 세계전통민속공연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이 참여한 각 국가 전통 무용 등 다양한 다문화 축하공연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외국인 끼-스타킹 선발대회가 이루어 졌는데, 각 국가별로 1팀씩 총 10개팀 이상이 참여하여 장기자랑을 통해 다양한 끼와 재능을 겨루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2부의 마지막 순서로 한국가요페스티벌(K-POP경연)도 마찬가지로 각국가별 1팀씩 총 10개 이상의 팀이 참여하여 한국가요 경연대회를 통한 한국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3부 시상식에서는 행복나누기로 사전에 이루어졌던 바다무지개 동아리 체육대회와 2부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끼-스타킹, 한국가요 페스티벌, 그리고 종합대상인 모범커뮤니티상 등의 시상식이 이루어 졌고, 행운권 추첨으로 경품을 드리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내부 행사 뿐만 아니라 행사 시작시간 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야외행사장에서 복리증진체험 및 홍보마당으로 고용노동부 창원고용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창원병원, 힐링닥터스봉사단, 경남봉사미회, 이수인헤어파크, 경남은행, 남창원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외환은행, 우리은행, 마산대학교, 창신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등이 참여한 상담, 의료, 환전, 뷰티 등 분야별로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어 여러 체험과 건강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창원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행복한 · 한가족이 되는 자리를 만들고자 개최한 행사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유학생 등 150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즐겨주셨습니다. 이번행사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지닌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국적 · 인종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에 와주신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유학생, 창원시민분들께 감사드리고,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게 참여해주신 기관들과 봉사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목 : 외국인 취업교육 등록

상담팀 직원 김소윤

### ○상담개요

- 우즈베키스탄 외국국적동포(H-2) M 씨는 한국에 입국 후, 한국어 및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옴

### ○진행과정 및 결과

####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우즈베키스탄 외국국적동포(H-2) M 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지사에 외국인취업교육신청서(고용특례자)를 팩스 수령 후 작성하여 2015.10.19.일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부산교육장에 신청 접수를 함

#### 2. 상담포인트

- 외국인 취업교육신청서를 작성 제출 후 교육비를 선납토록하고, 취업교육일정을 통보받아 근로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이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 ※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의 취업교육시간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제공이 아님
- 취업교육 비용의 부담 : 해당 외국인 근로자 본인
- 취업교육 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교육대상자 :

H-2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또는 국내에서 H-2 비자를 받을 경우 포함) 취업활동을 하려는 고용특례 외국인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신청

- Fax신청은 취업교육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Fax 송부 후 해당 지역본부 및 지사에 유선으로 송부내용을 확인, 접수 및 취업 교육비 수납



## - 신규/재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외국인고용지원팀 / 우수진 주임 : 055-212-7225) 전국 24개 교육장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능한 빨리 전화 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을 해야 원하는 날짜에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음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s://www.eps.go.kr>,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홈페이지 <http://eps.hrdkorea.or.kr/h2> 에 접속해 신청하면 됨)

- 또한 신규/재교육을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해야 무효처리됨을 방지할 수 있음



## - 외국인취업교육 신청시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앞, 뒷면 복사), 여권(앞면, 입국일기재면 복사), 신청서

## - 교육비

비합숙 102,000원 / 합숙 148,000원

☒ 2015년도 H-2 동포 취업교육 중 재교육에 대한 교육시간 및 수수료가 변경되었음

○ 시 행 일 : 2015년 1월1일부터 (재교육에 한함)

○ 변경내용

- 교육시간 : 16시간(3일) → 7시간(1일)

- 수수료 : 102,000원 → 65,500원

## 제출서류 :

취업교육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입금확인증

## 취업교육 비용 :

합숙 1인당 148,000원, 비합숙 1인당 102,000원

## 취업교육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취업교육장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신규 / 16시간 이상(3일 또는 2박3일)
- 교과과정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초기능 등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보험가입 안내

## ✻ 취업 교육장 안내

|                  |        |                 |               |                                                             |           |
|------------------|--------|-----------------|---------------|-------------------------------------------------------------|-----------|
| 부산교육장            | 부산지역본부 | 051-330-1842    | 051-361-8042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금곡동 1877)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합숙<br>비합숙 |
| 대구교육장            | 대구지역본부 | 053-654-9700    | 053-654-921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15(두류동 807-5)두원메디칼빌딩 7층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내         | 비합숙       |
| 광주교육장            | 광주지역본부 | 062-970-1754    | 062-972-3873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 비합숙       |
| 대전교육장            | 대전지역본부 | 042-580-9191    | 042-586-1919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25번길 1 (문화1동 165)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지하 1층, 지하 2층   | 비합숙       |
| 취경동교육장           | 서울남부지사 | 02-2137-0432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취경동-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비합숙       |
| 동대문교육장<br>(러시아어) | 서울남부지사 | 070-8250-7750~1 | 070-8250-775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11 (창신동)우리은행 창신동지점 건물 3층(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30-1) | 비합숙       |
| 동대문교육장           | 서울남부지사 | 070-8250-7750~1 | 070-8250-775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1 (창신동)우리은행 창신동지점 건물 (3층)                    | 비합숙       |
| 대구성서교육<br>장      | 대구지역본부 | 053-580-2370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17(갈산동 971-2) 대구성서비즈니스센터 2층                 | 비합숙       |
| 신도림교육장           | 서울남부지사 | 02-6959-9780    | 02-6959-978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18길39(구로동) 신도림미용고등학교(구로누리 베드민턴장) 1층            | 비합숙       |
| 동대문교육장<br>(재입국)  | 서울남부지사 | 070-8250-7750~1 | 070-8250-775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11 (창신동)우리은행 창신동지점 건물 3층(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530-1)   | 비합숙       |
| 부산교육장<br>(러시아어)  | 부산지역본부 | 051-330-1842    | 051-361-8042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금곡동)인력개발타운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합숙<br>비합숙 |

♣ 외국국적동포 홈페이지 로그인 &gt;마이페이지 &gt;접수이력조회 &gt;[접수] 버튼 클릭

### ♣ 가상계좌 취업교육비 입금 기한

- 가상계좌번호 부여 받은 일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입금
- 기한내에 취업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교육 신청이 자동 취소됨
- 가상계좌 입금시 청구이용 입금, 자동화기기 이용 입금 시 각각의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환불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공단 고객센터 1577-0071으로 문의
- 결제 시 오류 또는 환불계좌 입력 실패는 (주)LG데이콤 1544-7772로 문의
- 교육개시 전일까지 신청시, 전액 환불신청 가능
- 교육개시일 이후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취업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신청 가능

#### 사유

#### 증빙서류

취업교육 입교일 전 7일 이내에 본인이나 본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 외국인등록증

취업교육 대상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원

### 환불신청 방법

- (신용카드 결제자) 접수내역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 환불신청 가능
- \* 환불메뉴 : 외국국적동포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접수이력조회 >[환불 신청] 버튼 클릭
- (가상계좌 결제자)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을 방문, 여권, 외국인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지참 후 환불신청 가능
- \* 환불신청 접수 후 환불되기 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 환불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승인 취소내역 및 입금통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신청 후 환불절차

| 결제수단 | 환불방법             |
|------|------------------|
| 신용카드 | 결제 취소(승인/매입 취소)  |
| 가상계좌 | 환불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

### 기타 문의사항

- 환불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공단 고객센터 1577-0071으로 문의
- 결제 시 오류 또는 환불계좌 입력 실패는 (주)LG데이콤 1544-7772로 문의



## 취업교육 연기 안내

- 교육개시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신청 가능
- \* 다만, 교육 연기신청자는 교육비 환불신청이 불가함

## 연기신청 방법

-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을 방문, 접수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지참 후 교육변경(연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로 문의

## &lt;참고&gt; 건설업 취업교육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이 건설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카드형)을 발급받아야 함

※ 건설업 취업인정증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 체류허가 취소(2회이상 위반)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음

## 교육대상자 :

취업교육 이수 후 동 교육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 중 건설업 취업 희망자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신청

\* Fax신청시 건설업 취업교육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Fax 송부 후 해당 지역본부 및 지사에 유선으로 신청서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건설업 취업교육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 취업교육 비용 :

6만원(본인부담, 교육당일 납부)

## 교육내용

- - 교육시간 : 8시간(1일)
- - 교과과정 : 건설안전교육 등 건설업 취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환불절차환불신청 안내
- 외국인취업교육 신청시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앞, 뒷면 복사), 여권(앞면, 입국일기재면 복사), 신청서
- 교육비  
비합숙 102,000원 / 합숙 148,000원

##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역난방 및 용수공급 시스템 개선 사업 영하 40도 혹한에도 따뜻한 겨울 지낸다

글 | 양은영(홍보실 인턴기자 2기) 사진 | 홍보실

1년에 구름이 없는 날이 257일인 나라,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방 내륙에 위치하며 동절기 기온이 영하 40°C까지 내려가는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몽골이다. 길고 추운 겨울과 짧은 여름이 있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갖고 있는 몽골에서 난방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몽골 정부 또한 이를 인식,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냉·온수 공급센터 설비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2차례 사업 수행으로 에너지 사용량 20% 이상 절감

사업 대상 지역인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는 몽골 전체 인구의 1/3이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울란바토르의 냉·온수 기계실 시스템은 1970년대 말 구소련의 지원으로 설치된 장비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몽골 정부는 한국 정부에 몽골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도입, 노후화된 기계실 설비의 전면 교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몽골 정부가 자체적으로 '냉·온수 공급센터 설비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2002~2020)'과 '울란바토르시 급수 마스터플랜 및 폐수 마스터플랜(2006~2020)'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코이카와 시행 협의 후 '지역난방 및 용수공급 시스템 개선 사업'을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사진 1, 2. 2012년 2월 현장조사 당시 기계실 모습(왼쪽)과  
2013년 9월 2차 개선 사업 후 바뀐 모습(오른쪽).

2007년 실시된 1차 '지역난방 및 용수공급 시스템 개선 사업'은 울란바토르 시내 44개의 난방 및 온수공급 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의 선진기술 전수를 위해 몽골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에 관한 초청연수와 현지연수를 진행하였다.

1차 사업 종료 후 2010년 한 해 동안 운영한 결과, 몽골의 난방생산용 에너지 사용량은 20%가량 줄어들었고, 울란바토르 시민들에게 24시간 안정적인 온수와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1차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0년, 1차 사업 지원에서 제외된 42개소의 기계실을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2차 사업이 진행되었다. 2차 사업은 몽골의 추운 기후 특성상 공사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고려하여 기계, 전기, 토목, 제어 기술자들로 구성된 설치팀 7개조를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차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울란바토르시 외곽 게르 지역 주민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얻게 되었다.





한국의 선진기술 전수를 위해 2012년 5월 24명의  
몽골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 연수를 시행하였다.

## 현지 평가 좋아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외 공사 수주 성과도

코이카는 이번 몽골 지역난방 및 용수공급 시스템 개선 사업을 통해 몽골 주민들의 물 사용량을 절감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과거에는 급탕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관에 있는 찬물이 모두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양의 물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급탕 펌프를 설치함으로써, 누수되는 물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을 몽골에 파견하여 현지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몽골 자체 기술력으로도 여러 문제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에 대한 몽골 현지의 반응도 뜨거워 몽골의 영자신문 의 1면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프로젝트의 수혜자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동 지역 주민들이 개선된 용수 시스템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원조 사례로 평가받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코이카와 함께 1차, 2차 사업을 수행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사 최초 국제기구 ADB(Asian Development Bank) <sup>1)</sup>수주에 성공하여, 1,191억 달러 규모의 '울란바토르 게르 지역 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196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설된 기구.

## **‘한-WFP 새마을 제로 헝거 커뮤니티 사업’ 워크숍 한국의 ‘새마을운동’ 이젠 세계로, 미래로**

2015-09-01

글 | 황혜인(홍보실 인턴기자 2기) 사진 | 홍보실

코이카는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WFP 새마을 제로 헝거 커뮤니티 사업’의 이해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사업 대상국인 네팔, 르완다,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등 총 4개국의 코이카 및 WFP 국가사무소, 굿네이버스 및 수원국 정부 사업 관계자와 WFP 본부 측 인사 등 약 40여 명이 참여, 사업 추진 경험 및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WFP와 공동 추진하는 농촌 개발 프로그램**



권태면 코이카 사업개발 이사 주최 오찬에 참석한 관계자들. 권태면 이사, 이연수 실장 외 본부 사업 관계자, 스탠레이크 샘킨지 WFP 국장, 임형준 WFP 서울 사무소장 외 4개국 코이카, WFP, 수원국 정부, 굿네이버스 사업 관계자.

‘한-WFP 제로 헝거 커뮤니티 사업’은 세계 최대 식량안보 전문기구인 WFP의 식량사업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접목시킨 농촌 지역 개발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네팔, 르완다,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4개국 대상 즉각적 기아 해결 및 중장기 식량안보 역량 강화를 목표로 WFP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개별 국가에서 진행 중인 WFP 새마을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 성공요소 분석 및 액션플랜 수립을 통해 진행 사업의 완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크게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소 및 국제기구 지역개발 사업과의 비교분석 등을 다룬 이론 강의, 진행 사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임토의, 액션플랜 수립, 현장방문으로 구성,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기간 상호간 피드백을 교환하며 사업 발전 방안 모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거버넌스(사업 수행체계, 수원국 정부 역할 등)’ 및 ‘지속 가능성(마을 지도자 교육, 사업 수행 역량, 출구전략 등)’을 주제로 진행된 분임토의에서 국별 사업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해결과제를 도출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로 임했다.



1. WFP 스탠레이크 샘킨지 본부 정책사업혁신 국장이 워크숍에서 ‘WFP의 제로 헝거 추진 사업전략 안내’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2. WFP 스탠레이크 샘킨지 본부 정책사업혁신 국장이 코이카 직원들을 대상으로 ‘WFP 기구 소개 및 한국 정부와의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WFP 간부 “식량안보 협력 파트너십 제고”

또한 WFP 새마을 협력사업 현장 경험을 보유한 코이카 사업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공유, 새마을운동 관련 이론 강의가 이어졌으며, 충남 당진에 위치한 ‘백석올미’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을 방문하여 조합 운영·관리 성공사례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4개국 참가자들은 5일간의 워크숍 활동을 토대로 거버넌스 및 지속 가능성 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별 액션플랜을 수립,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 요소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진행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과 의견 공유가 이루어졌다.

20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워크숍에 참석한 WFP 본부 스탠레이크 샘킨지 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해 많은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정부와 WFP, 사업 대상국가 간 새마을운동 및 제로 헝거 식량안보에 대한 협력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은 사업 효과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 1. 워크숍 참석자 단체사진. 코이카 이연수 다자협력실장 외 본부 사업 관계자, WFP 스탠레이크 샘킨지 국장, WFP 임형준 서울 사무소장, 4개국 코이카, WFP, 수원국 정부, 굿네이버스 사업 관계자.
- 2. 충남 당진 ‘백석올미’ 마을 현장 방문 모습. WFP 방글라데시 사무소 및 굿네이버스 현지 직원.

1. 한-WFP 새마을 제로 형거 커뮤니티 사업

한-WFP 새마을 제로 형거 사업이란 네팔, 르완다,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4개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및 주민 주도형 리더십을 강조한 '새마을운동' 요소와 'Cash for Asset' 등 WFP의 식량사업 노하우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 개발 사업이다.

2. 세계식량기구(WFP·World Food Programme)

WFP는 세계 최대의 식량안보 및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로, 우리 정부의 중점 협력 국제기구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WFP의 식량 전문성에 기반하여 '한-WFP 새마을 제로 형거 커뮤니티 사업' 외에도 '한-WFP 식량안보 프로그램' '동티모르 WFP 영양 개선 사업'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3. 제로 형거 챌린지(Zero Hunger Challenge)

제로 형거 챌린지(Zero Hunger Challenge)는 전 세계 10억 인구가 여전히 기아로 고통받고 있음을 감안, 2012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한 식량안보 이니셔티브다. ①기아퇴치 ②여성, 아동, 남성의 먹을 권리 향유 ③여성 역량 강화 ④가족 작농 우선순위 ⑤지속 가능하고 복원 가능한 식량 시스템 수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WFP가 주도적으로 달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첫째주

- 고충상담
- -토요일간상담

## CFCA 10월 행사 안내

## 둘째주

- 운전면허교실(6회차)(12:00~13:00)-다목적홀
- 제9회 컴속속왕 대회(15:00~17:00)-컴퓨터실
- 통영고용센터이동상담(09:30~17:00)
- 한국산업인력공단경남지사, 창원시청(기업사랑과), 경남도청(여성가족정책지원과)방문(14:00~)
- 바다투지개 소식지 10월호 발간
-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교육 이동상담 및 지원(13:00~17:00)-남해군청
- 소방훈련(마산소방서)(13:00~)

## 셋째주

- 마음한의원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15:00~17:00)-다목적홀
- 세종대왕 한글대회(O:X퀴즈)(11:00~12:00, 14:00~15:00)
- 이미용서비스 실기(09:00~)-교육실복도
- 운전면허교실(7회차)(12:00~13:00)-다목적홀
- 진주고용센터 이동상담
- 3분기 지도점검
- 고용여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C홀)

- 마산의료원 무료진료(14:00~16:00)-센터 상담실
- 제42회 TOPIK시험실시(08:00~)-경남대학교
-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참가(08:00~)-안산호수공원
- 운전면허 교실(8회차)(12:00~13:00)-다목적홀
- 통영고용센터이동상담(09:30~17:00)
- (주)건화 사업장 안전교육
- EPS경남 워크숍(15:00~17:00)
- 농축산업 사업장 밀착 상담 서비스(13:00~17:00)-진주시 농업인 회관

## 넷째주

## 다섯째주

- 마산대학 건강상담(15:00~17:00)-다목적홀
- 1일 경남투어(07:30~18:30)-통영시 일원
- 법률교육실시(자체교육)(11:00~12:00, 14:00~15:00)-조급반, 중급반
- 진주고용센터이동상담(09:30~17:00)
- 상담통역원 직원직무능력 성취도 평가(14:00~15:40)-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

## CFCA와 함께해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mailto: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http://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70-4481-6703



070-4481-6702



070-4481-6701



070-4481-6704



070-4481-6705



070-4481-6706

##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후원해 주셨습니다.

|             |            |            |
|-------------|------------|------------|
| 우리은행        | 2015.09.11 | 칫솔, 치약 세트  |
| 외환은행        | 2015.09.17 | 선물세트       |
| 경남은행사랑 나눔재단 | 2015.09.25 | 3,000,000원 |
| 파워콤         | 2015.09.25 | 1,000,000원 |

## < 후원계좌 >

경남은행 513-07-01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